

持統朝의 文學과 政治*

- 人麻呂와 그의 文學을 중심으로 -

尹永水**

目次

- I. 序論
 - II. 持統朝의 政治
 - III. 人麻呂의 作歌
 - IV. 人麻呂의 歌人的 性格
 - V. 結論
-
-

I. 序論

필자는 근래에 발표한 논고¹⁾에서, 天武朝(A.D. 672~686년) 탄생의 계기가 된 <壬申의 亂>(A.D. 672년)의 원인을 황위계승문제에 대한 大海人황자의 불만과 집권욕, 近江朝廷의 중앙집권의 강화와 백제의 망명지식인 및 유력호족의 우대정책에 대한 지방호족층과 신라계 세력의 불만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립된 天武朝는 天皇即神思想과 現人神思想이 극도로 高揚된 시대로서 일본고대사에 있어서 <大化改新>(A.D. 645년) 이래 추진해온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와 율령에 의한 지배체제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는 점에서 정치적·역사적 의의는 매우 클 뿐만 아니라, <帝紀 및 上古諸事>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본고대문학·고대일본학 전공.

1) 拙稿, <天武朝의 文學과 政治> 《日本文化學報》 第27輯, 韓國日本文化學會, 2005. 11.

의 記定에 의해 나중에 《古事記》 《日本書紀》가 편찬되고, 이로 인해 세계에서 그 유례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는 체계화되고 정치적인 일본신화가 탄생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天武朝가 가지는 日本文化史上의 의의도 자못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天武朝는 어디까지나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왕조인 만큼, 정치적 개혁이 급선무였고, 문학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서는 近江朝(A.D. 667~672년)에 있어서의 한문학에 뛰어난 백제의 망명지식인들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궁정문학과 한문학도 침체하였고, 萬葉歌의 작품 수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天武朝는 柿本人麻呂 등이 크게 활약하는 持統朝(A.D. 686~696년)의 和歌 황금기를 준비하는 시기는 될지언정 융성기는 결코 아니었고, 문학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日本化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렇다면, 天武朝 이후의 왕조인 持統朝의 문학과 정치는 어떠한 양상을 띠며 전개해 가는가? 본 연구는 持統朝에 日本文學史上 <歌聖>이라 불리는 최대의 歌人인 柿本人麻呂가 공식적으로 등장해 온다는 점에서, 柿本人麻呂와 그의 문학을 중심으로 持統朝의 문학과 정치를 학제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持統朝가 갖는 역사적·시대적 배경과 日本文化史上의 意義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持統朝의 政治

日本古代史에 있어서 “持統朝는 天武朝의 계승이다”고 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이는 持統女帝가 天武천황의 아내로서 황후의 지위에 있다가 天武가 사망하자 곧 稱制했고, 그 후 무사히 천황으로 즉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인정할 수 있다. 持統女帝의 이력을 《日本書紀》에 의하여 대략 살펴보면, 부친은 天智천황이었고, 모친은 蘇我倉山田石川麻呂의 딸이었던 遠智娘였다. 同母의 누이에 大田황녀가 있고, 異母弟妹에 大友황자(나중의 弘文천황)와 阿倍황녀(나중의 元明天황) 등이 있었다. 齊明三年(657)에 아버지의 친동생인 大海人황자(나중의 天武천황)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때의 나이는 13세였고 아마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일종의 정략결혼이었다고 볼 수 있다. 661년 백제에 구원군을 파견함에 따라,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九州에 가서, 天智一年(662)에 筑紫에 있는 那의 大津(현재의 福岡市 博多)에서 草壁황자를 낳았다.

671년에는 남편 大海人황자를 따라 近江의 大津宮을 떠나 吉野山에 들어갔다. 이어서 다음 해인 天武一年(672)에는 大海人이 일으킨 壬申의 난에 남편과 함께 東國지방으로 갔었고, 近江조정이 멸망하여 大海人이 天武천황으로서 즉위할 때, 황후로서 天武의 정치를 도왔던 것이다. 《日本書紀》에도

皇后、始より今に至るまでに、天皇を佐けまつりて天下を定めたまふ。毎に侍執る際に、すなはち言、政事に及びて、叱け補ふ所多し。(持統 稱制前紀 二年)

(황후,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황을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렸다. 매사에 있어서, 즉 말이나 政事に 이르기까지, 보좌하는 바가 많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持統는 황후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天武朝에 호족사유의 部曲을 폐지하고, 율령제적인 관료제도를 정비할 때에도 황후로서 큰 발언력을 갖고, 천황을 보좌하여 정치에 참여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天武十年(681)에는 天武천황과 함께 소위 <淨御原律令>의 제정에 착수하는 詔勅을 내리기도 했다. 天武十五年(686) 九月 天武천황이 서거했을 때도, 황태자였던 草壁황자는 병으로 인하여 황위에 오르지 못하고, 持統三年(689) 四月에 사망한다. 이에 持統는 皇太后로서 정치를 행하고, 같은 해 六月에 <飛鳥淨御原令>을 시행, 다음 해인 持統四年(690) 一月에 즉위하였던 것이다. 持統는 슈에 근거하여 호적을 만들고, 百官을 선임하여 朝服을 정하고, 冠位를 수여하는 등, 令制에 충실을 기했다. 또한 高市황자를 太政大臣에 임명하여(持統四年 七月) 자신의 정치를 보좌하게 하였고, 右大臣으로서 丹比嶋真人을 임명했다. 게다가 藤原京의 造營도 착수하여 持統八年(694) 十二月에 천도했다. 《萬葉集》에는 藤原宮 관련의 노래로서 柿本人麻呂의 작품이라고도 추정되는 <藤原宮之役民作歌>(卷一, 50), <從明日香宮遷居藤原宮之後志貴皇子御作歌>(卷一, 51) · <藤原宮御井歌>(卷一, 52~53)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持統十年(696) 七月에는 高市황자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草壁의 아들인 輕황자를 황태자로 정하고, 文武元年(697)에 양위하여 輕황자를 文武천황으로서 즉위시켰다. 그 후에도 持統는 文武를 도와 정치를 집행했는데, <大宝律令>이 완성되고 시행된 大宝二年(702)에 58세의 나이로 病死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持統천황의 시대는 고대왕권의 확립자인 天武천황의 遺業을 오로지 계승하고 완성하려고 했던 시기로서, 중앙과 지방에 이르는 정치기구의 정비는 물론이고, <大宝律令>의 완성에 의해 <大化改新> 이래 추구해온

율령에 의한 지배체제와 중앙집권적 국가가 확립 완성되었던 것이다. 《萬葉集》의 제2기의 歌人인 柿本人麻呂가 문학사의 전면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창조성이 풍부한 萬葉歌(和歌)를 제작하고, 고대문학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도 바로 이 持統朝인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柿本人麻呂와 持統朝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人麻呂의 작품을 통해 파악해 보기로 한다.

Ⅲ. 人麻呂의 作歌

일반적으로 柿本人麻呂는 持統·文武朝의 궁정가인이라고 말하여진다. 이 궁정가인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설도 있지만,²⁾ 人麻呂가 持統朝의 궁정에 밀착해 있던 가인이라는 것은, 人麻呂作歌의 제작연대를 검토해 보면 쉽게 납득이 가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持統朝의 궁정가인이라는 것은 일단 최대공약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人麻呂의 작품은 人麻呂歌集歌를 일단 제외한다면, 명확하게 그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持統천황 三年(689) 四月에 사망한 황태자 草壁(日並)황자의 殯宮행사 때에 지은 挽歌를 시작으로 해서, 文武천황 四年(700)에 사망한 明日香(아스카)황녀의 殯宮 때에 지은 挽歌를 마지막으로 하는, 약 12년간에 걸쳐 제작된 노래가 대부분이다. 제작연대가 분명한 작품을 시대순으로 하여 年代·題詞·國歌大觀 번호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持統三年(689), 日並皇子尊殯宮之時 柿本朝臣人麻呂作歌一首并短歌 (卷二, 167~170)
- ② 持統五年(691), 柿本朝臣人麻呂獻泊瀨部皇女忍坂部皇子歌一首并短歌 (卷二, 194~195)
- ③ 持統六年(692), 幸于伊勢國時留京柿本朝臣人麻呂作歌 (卷一, 40~42)
- ④ 持統十年(696), 高市皇子尊城上殯宮之時 柿本朝臣人麻呂作歌一首并短歌 (卷二, 199~202)
- ⑤ 文武四年(700), 明日香皇女木麻呂殯宮之時 柿本朝臣人麻呂作歌一首并短歌 (卷二, 196~198)

이 외에도 대략 연대가 추정 가능한 작품으로서,

- ⑥ 過近江荒都時 柿本朝臣人麻呂作歌 (卷一, 29~31)
- ⑦ 幸于吉野宮之時 柿本朝臣人麻呂作歌 (卷一, 36~39)
- ⑧ 輕皇子宿于安騎野時 柿本朝臣人麻呂作歌 (卷一, 45~49)

2) 吉永 登, 〈宮廷歌人の存在を疑う〉《萬葉 -文學と歴史のあいだ-》, 創元社, 1967.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제작연대가 확실한 것이 五歌群, 대략 추정 가능한 것이 三歌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文武四年의 작품, <明日香皇女殯宮挽歌>를 제외하면, 모두 持統朝에 제작된 노래이다. 더욱이 文武四年에는 持統천황은 太上천황으로서 아직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한 시기였음을 고려해 볼 때, <明日香皇女殯宮挽歌>도 持統朝의 작품으로 간주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人麻呂作歌는 모두가 持統천황의 治世中에 제작된 작품으로서, 그 내용도 황자황녀와 관련된 궁정관계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人麻呂作歌가 궁정에 관계된 작품이 많고, 그것도 持統朝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人麻呂가 天武朝 무렵에는 아직 젊어서 作歌에는 숙달되어 있지 못했고, 文武朝에는 이미 나이가 들어 持統朝와 같이 왕성한 作歌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필자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고 안이하게 처리한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人麻呂가 연대가 확실한 최초의 노래를 제작한 것은 持統三年(689) 日並황자의 빈궁행사 때였다. 이 노래는 해석상의 난해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렬한 작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구조상이나 수사법상에 있어서도 이미 人麻呂작품의 전형적인 형식을 이루고 있고, 후기의 작품과 비교해 보아도 결코 뒤떨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日並皇子殯宮挽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近江荒都歌>도 필자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³⁾ 기교적으로 졸렬한 작품이 아니며, 중후한 느낌마저 갖게 하는 노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품이 아무런 준비기간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제작될 수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人麻呂는 틀림없이 持統朝 이전에 이미 예행연습과 같은 作歌修業기간을 가졌으리라 추정된다. 그것을 필자는 人麻呂歌集歌에 있어서의 <略体歌>에서 <非略体歌>로 넘어오는 시기, 즉 近江朝에서부터 天武朝까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日本學界에서 “수수께끼의 歌聖(謎の歌聖)”이라 말하여지는 바와 같이, 人麻呂를 생각하면 할수록 의문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첫째 持統朝 이전에 이미 人麻呂歌集歌를 비롯한 많은 萬葉歌를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노래가 한 수도 없는 점이고, 두 번째는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는 2년 3개월이라는 오랜 天武殯宮기간에도 挽歌 한 수 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天武殯宮이 끝나고(持統二年十一月, 688년), 불과 5개월 후에 사망한 황태자 草壁황자의 殯宮행사에 갑자기 공식적으로 등장해 오는 것이다. 더욱이 持統朝의 어용시인 또는

3) 拙稿, <近江荒都歌小論> <<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 -文學研究科->> 第25輯, 1994. 2.

궁정가인으로서 持統천황에게 바친 <吉野讚歌>(卷一, 36~39)를 비롯하여, 天武천황의 여러 황자에게 바친 찬가·草壁황자 이하의 여러 황자황녀의 죽음에 대한 挽歌 등, 많은 宮廷儀禮歌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持統천황이 정작 사망했을 때에, 人麻呂의 挽歌는 <萬葉集>에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持統 사망 후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人麻呂의 노래는 단 한 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人麻呂는 어떠한 계기로 해서 持統朝廷의 궁정가인이 될 수 있었고, 天武朝와 文武朝에는 왜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人麻呂의 궁정가인으로서의 역할이 持統朝와 함께 시작되고, 持統朝와 더불어 終焉을 고했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人麻呂와 持統朝와의 관계는 결코 우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人麻呂 연구자라면 누구나 의문을 품어 왔고, 또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설이 없는 상태이고 통설조차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持統朝에 있어서의 人麻呂의 歌人的 성격에 대하여, 先學의 諸說을 면밀히 검토해 본 다음, 다시 한 번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IV. 人麻呂의 歌人的 性格

人麻呂의 歌人的 성격에 대한 諸說 중에서, 먼저 人麻呂 <後宮官人說>을 주장한 橋本達雄씨의 견해⁴⁾가 있다. 橋本씨는 人麻呂가 어떤 특정한 황자의 속인(도네리)가 아니라, 天武朝부터 持統를 중심으로 하는 후궁에 봉사하면서 天武천황의 여러 황자황녀들과 관계했고, 또한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人麻呂는 持統황후가 주재하는 후궁기관에 적을 두고, 후궁관계의 和歌나 詞章을 짓는 하급관인이었으며, 持統천황이 즉위하고 나서는 공적인 방면에도 진출하여 찬가나 궁정만가(宮廷挽歌)를 제작하여 헌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天武殞宮時나 持統崩御後에 人麻呂의 挽歌가 <萬葉集>에 보이지 않는 것은 挽歌를 신하에게 요구하거나, 挽歌를 헌정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이와 같은 人麻呂의 持統 <後宮官人說>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흥미롭고 설득력도 있는 듯이 생각된다. 특히 人麻呂가 天武朝가 아니라 持統朝에 들어와 갑자기 각광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4) 橋本達雄, <人麻呂と持統朝> <萬葉集 I>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有精堂, 1969.

橋本씨와 마찬가지로 人麻呂作歌의 場을 持統후궁으로 想定한 학자에 伊藤 博씨도 있다. 氏에 의하면,⁵⁾ 人麻呂가 持統治世와 동시에 공적인 장소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持統여제가 황후시절부터 이미 人麻呂의 강력한 비호자였고, 人麻呂는 일찍부터 황후 持統의 신임이 두터운 전속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人麻呂는 天武궁정의 家政祭祀의 기관으로서 천황행정기관에 밀착해 있는 天武후궁사회(內廷)에 詞章 그 외의 일을 갖고 봉사한, 각별히 우수하고 성실한 持統女帝의 <後宮おかかえ歌人(후궁전속가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持統을 중심으로 하는 황자황녀들이 형성하는 사회, 즉 후궁과의 관련을 人麻呂에게 찾아내어, 人麻呂는 天武朝에 있어서는 황후인 持統의 신변에 있으면서 詞章과 같은 후궁관계의 일에 봉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橋本씨의 견해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人麻呂를 전통의 舍人的 존재로 파악하면서, 人麻呂의 궁정만가나 천황찬가는 舍人가인들의 경직된 정신에 의한 배우적 연기이며, 궁정로망적인 노래들은, 舍人가인들의 유연하고 우아한 정신 위에 선 배우적 연기였다⁶⁾고 주장하는 데에 伊藤 博씨의 독창적인 견해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伊藤 博씨의 人麻呂 <歌俳優說(노래배우설)>은 人麻呂가 挽歌詩人으로서 엄숙하고 장중한 빈궁만가나 궁정찬가를 노래 부른 가인이라는 점과, 그의 궁정관계가가 대부분 공적인 장소에서 피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人麻呂를 특정의 황자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書吏 또는 舍人으로서 파악한 학자에 阿蘇瑞枝씨와 渡瀬昌忠씨가 있다.

阿蘇瑞枝씨의 경우는, 人麻呂作歌와 人麻呂歌集歌의 <非略体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天武의 황자인 忍壁황자에 주목하여, 忍壁을 高市황자에 다음 가는 고령자라는 논증을 통해 持統三年(689) 人麻呂가 공식으로 持統궁정에 등장해 오기 이전에 시중들었던 황자는 忍壁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으며, 人麻呂는 忍壁을 통하여 여러 황자와 접촉할 수 있었고, 獻歌나 궁정의례가를 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人麻呂가 天孫降臨의 신화전승을 이야기하고, 일본초대천황이라고 말하여지는 神武천황 이래의 皇統을 찬미하며, 天皇即神思想을 노래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忍壁황자를 통해서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에 관여했기 때문이며, 이 때 人麻呂는 忍壁家の 書吏 혹은 家從 · 家扶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⁷⁾

5) 伊藤 博, 《萬葉集の歌人と作品上》, 塙書房, 1975, pp.73~80.
 6) 上掲書, pp.102~108.
 7) 阿蘇瑞枝, 〈柿本人麻呂と忍壁皇子〉《國語國文學》1972年 10月 特集號

渡瀬昌忠씨는 草壁황자의 궁전이었던 <島の宮>가 활기를 띠는 天武九年(680) 무렵, 연대가 확실한 人麻呂歌集의 七夕歌(卷十, 2033)가 존재하는 점, 人麻呂作歌 가운데 그 제작연대가 명확한 최초의 작품이 持統三年(689) 四月에 사망한 日並(草壁)황자의 이 <島の宮>의 주요한 殯宮時의 挽歌였다는 점에서 人麻呂歌集뿐만 아니라 人麻呂作歌, 즉 人麻呂문학은 <島の宮>와 함께, 그리고 <島の宮>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한다.⁸⁾ 또한 輕皇子(文武)의 阿騎野 出遊에 人麻呂가 수행하여,

* 日並の 皇子の命の 馬並めて 御獵立たしし 時は來向ふ (卷一, 49)
(돌아가신) 日並皇子가 말을 타고 사냥 나가셨던 시각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人麻呂는 天武朝에 있어서 草壁황태자의 阿騎野 유렵에도 수행했을 터이므로, 人麻呂가 황태자의 <島の宮>에 출사했을 公算은 크며, 이 때의 관직을 굳이 상정한다면 나중의 東宮職員승에서 <舍人監>으로서 고정되어 가는 <正>(從六位上에 상당), <佑>(正八位下 상당), <舍史>(少初位上 상당) 등, 東宮舍人 관계관의 어느 관직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舍人을 거쳐 그러한 관직에 오른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인으로서도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⁹⁾

人麻呂의 歌人的 성격에 대하여 天武四年(675) 二月의 詔勅, <所部の百姓の 能く歌ふ男女、及び侏儒・伎人を選びて貢上れ>를 근거로 한 吉田義孝씨의 <理官官人說>과 久米常民씨의 歌舞所の <歌びと說(歌人說)>도 있다.

吉田義孝씨는 위의 조칙과 人麻呂歌集 <略体歌>의 結集사정을 관련시켜, 人麻呂를 歌舞音曲을 통한 儀式典禮의 업무에 충실한 官人으로 파악하고, 나중의 大宝律令에서 <治部省>이라는 형태로 제도화 해 가는 典禮에 관한 部局의 일부 職을 大舍人으로서 分掌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그 후 人麻呂는 歌男歌女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들을 관리하는 理官의 官人에 임명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

久米常民씨의 경우는, 天武四年 二月의 조칙을 나중의 雅樂寮(歌舞所)의 歌人·歌女 제도의 효시로 보고, 人麻呂는 처음 그곳에 <歌びと(가인)>으로서 등용되어 天武궁정에 봉사했고, 그 임기만료와 함께 大舍人이 되어 官人생활에 들어가 궁정가인으로서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 <人麻呂文學の形成> 《古代文學》 第12號.

8) 渡瀬昌忠, <島の宮(上)－人麻呂文學の基点－> 《文學》 1971年 9月號.

9) 渡瀬昌忠, <人麻呂の出現> 《日本文學全史1 上代》, 學燈社, 1978年, pp. 268~270.

10) 吉田義孝, <天武朝における柿本人麻呂の事業> 《國語國文學報》 第十五集.

이상의 견해와는 달리, 人麻呂가 그를 비호하는 한 사람의 고관에 의해 持統朝의 궁정가인의 場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中西進씨의 설¹²⁾도 있다. 즉, 中西進씨는 人麻呂가 持統朝의 궁정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持統四年(690) 持統가 즉위한 해에, 右大臣에 임명된 丹比嶋真人에 의해서이며, 大宝元年(701) 그의 퇴장(사망)과 함께 持統朝廷을 떠났고, 持統·丹比·人麻呂 이 세 사람의 활약은 때를 같이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 수수께끼의 歌聖인 柿本人麻呂에 대한 傳記的 사실에 대하여, 근래에 들어와 日本歌道の 명문인 二條家の 비밀문서로 전해 내려온 《大日本哥道極秘伝書》(1718년)를 근거로 삼아, 1300년 전의 歌聖 人麻呂는 당대의 女帝인 持統天皇과 금지된 사랑을 벌이다가 발각되어 중죄를 지은 결과 山部赤人が 되어 두 명의 이름으로 살았으며, 그는 일본인 어머니와 新羅 문무왕 사이에 태어난 천재소년으로서 한일문화에 정통한 가인으로 성장하여 持統天皇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마침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¹³⁾고 기술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일본학자들의 諸說에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수공이 가는 바가 많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근거가 없는 까닭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느 것이 확실시된다거나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설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가능성이 없는 설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개연성은 어느 학설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학자들의 견해에는 人麻呂를 파악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본 다음에,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필자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¹⁴⁾ 人麻呂의 近江朝에 대한 感傷을 노래한 歌群, 즉 <近江荒都歌>(卷一, 29~31)나 <宇治河邊歌>(卷三, 264)·<夕浪千鳥歌>(卷三, 266) 등을 통해서 볼 때, 人麻呂는 백제의 망명인이거나 백제계 渡倭人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살던 近江의 韓崎에서 天智의 近江朝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11) 久米常民, <古代歌謠·傳承と創造> 《國語と國文學》 1972年 10月號.

12) 中西進, <韃靼の歌聖 柿本人麻呂> 《歴史と人物》 1978年 11月號.

13) 柿花仄 지음·姜容慈 옮김, 《여제(女帝)의 사랑》, 제이플러스, 2003.

14) 拙稿, <人麻呂文學의 時代的 背景(上)> 《日本學報》 第34輯, 韓國日本學會, 1995. 5, pp.268~280.

---, <日本の 古代歌聖, 柿本人麻呂는 百濟系인가?> 《東아시아古代學》 第1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0. 6. pp.56~63.

- 둘째, 《懷風藻》(751년)의 序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近江朝의 文學적 상황은 百濟의 망명지식인들에 의해 한시한문학이 크게 盛行했고, 人麻呂 노래 속에도 한문학의 影響을 인정할 수 있다.
- 셋째, 人麻呂歌集의 <略體歌>는 그 筆錄시기가 天武九年(680) 以前이라고 하지만, 그 <略體歌>의 표기법이 일본어보다는 漢語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실제의 筆錄시기는 近江朝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 넷째, 672년 <壬申의 난>으로 인하여 近江지방에 이주해 살던 百濟계 도왜인들은 晄晄이 흩어졌으며, 近江大津宮은 황폐화되고, 많은 詩文이나 典籍도 잿더미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의 百濟세력의 약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天武朝에서는 百濟계 도왜인들의 활약이 크게 위축되었음에 틀림없다.
- 다섯째, 人麻呂歌集의 七夕歌(卷十, 2033)의 제작연대가 天武九年(680)이 분명한 이상, 人麻呂는 天武朝에 있어서도 이미 왕성한 作歌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 여섯째, 人麻呂는 天武十三年(684) 十月에 <八色の姓>이 제정되고, 同年十一月에 <朝臣>姓을 하사 받은 柿本臣媛와 동족 내지 가까운 혈연관계(同一人일 가능성¹⁵⁾를 포함)에 있었고, 그 활동시기도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人麻呂도 이때부터 <柿本朝臣人麻呂>로 불리게 되었다.
- 일곱째, 人麻呂作歌에 현저하게 나타난 <高天原>의 관념과 <天皇即神思想>은 모두 天武朝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人麻呂는 天武朝의 시대적·사상적인 影響을 강하게 받았고, 天武十年(681) 三月 川島皇子·忍壁皇子 등에게 하명을 내린 <帝紀 및 上古諸事の記定>도 人麻呂의 思想형성에 직접 간접으로 影響을 미쳤다.
- 여덟째, 天武朝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작품 중에 人麻呂의 공적인 노래는 한 수도 없고, 天武殞宮과 관련된 挽歌도 없다. 그렇지만 人麻呂歌集歌 중에 <獻弓削皇子歌>(1701~1703·1709·1773)를 비롯하여, <獻舍人皇子歌>(1683·1684·1704·1705·1774·1775), <舍人皇子御歌>(1706), <獻忍壁皇子歌>(1682) 등, 황자나 궁정에 관계된 작품도 있는 것으로 보아, 天武朝廷과도 관련이 있다.
- 아홉째, 人麻呂의 공적인 궁정가인으로서의 역할은 持統天皇과 함께 시작되었고, 持統天皇의 사망과 더불어 終焉을 고했다. 이것은 人麻呂作歌의 제작연대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다.
- 열번째, 人麻呂의 공적인 노래가 持統天皇의 治世中에 집중되어 있고, 持統崩御(大寶二年·702) 後의 人麻呂작품이 없는 점으로 보아, 人麻呂는 持

15) 梅原 猛, 《水底の歌(上)(下)》, 新潮文庫, 1983.

統天황 내지는 持統朝에 밀착되어 있었던 가인이었다. 또한 人麻呂의 終焉歌群(卷二, 223~227)의 수록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人麻呂는 奈良천도(和銅三年·710) 이전에 사망했다.

이상의 열 가지 사항은 人麻呂傳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확정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사람도 일본학계에는 많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헌학적인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자가 고찰한 바로는, 위의 열 가지 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확정조건이라 볼 수 있고, 모두 人麻呂의 작품을 통해서, 또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근거들이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人麻呂의 문학활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人麻呂의 歌人的 성격을 파악하려 할 때, 먼저 人麻呂가 百濟系 歌人으로서 近江朝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쉽게 납득이 가리라 생각된다. 즉, 柿本人麻呂는 백제의 亡命渡倭人은 아니었지만, 大和지방에 오래전부터 건너가 살고 있던 백제계 도왜인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白江(금강하구)전투의 패배 후에 있었던 近江遷都時, 온 가족과 함께 大和에서 近江 大津宮이 있는 호반의 마을 滋賀의 辛崎(韓崎)에 이주하여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近江遷都時 백제의 망명인들뿐만 아니라 大和지방에 살던 백제계 호족·궁정인들도 함께 近江로 이주했다는 것은, 額田王의 近江遷都時의 작품(卷一, 17~18)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이 간다.

人麻呂는 아마 近江朝 말기에는 아마 궁정에도 出仕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던 중에 壬申의 난을 당하여 近江에서의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또한 壬申의 난으로 인하여 망명도왜인 및 백제계인들은 그때까지 누리고 있었던 특혜와 권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¹⁶⁾ 다시 말하면, 近江朝廷의 정치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백제계 도왜인들은 황위계승문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壬申의 난에 어쩔 수 없이 말려들게 되었고, 결국 大友황자의 近江側이 패배함으로써 백제계 도왜인들도 여기저기 흩어지고, 수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人麻呂가 자신의 近江에서의 생

16) 拙稿, <柿本人麻呂에 있어서의 壬申의 亂과 天武朝> 《日本學報》 第37輯, 韓國日本學會, 1996. 11, pp.319~323.

활체함을 회상하면서 悲傷하는 <近江荒都歌> 등은, 바로 人麻呂가 자신의 청소년 시절의 추억을 소재로 한 自敘傳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近江朝廷에 출사했고, 滋賀의 韓崎에 살던 백제계 도왜인이 다름아닌 人麻呂였다면, 그는 당연히 天武朝에서는 궁정가인으로서 공적인 방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人麻呂의 문학에는 다분히 한문학적인 영향이 잔존해 있고, 天武九年(680) 이전의 筆錄이라고 말하여지는 人麻呂歌集의 <略体歌>의 표기법도 일본어보다는 오히려 漢語에 가까운 표기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人麻呂문학의 출발은 天武朝가 아니라, 이미 近江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人麻呂와 그의 문학을 近江朝와 결부시키지 않고, 天武朝 또는 持統朝에만 관련시키려는 일본 학자들의 학문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만약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결정적 근거가 없다 하고,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면, 일본학자들이 주장하는 人麻呂 天武朝出仕說이나 舍人說 등도 전혀 근거가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작가론이나 작품론만은 설득력 있게 해명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합리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人麻呂의 문학은 近江朝부터 출발했으나, 天武朝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近江朝廷과 밀접하게 관련된 백제계 도왜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天武朝에서는 백제계 도왜인은 그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것은 신라계로 보이는 도왜인은 《日本書紀》 天武紀에 많이 보이고 있지만, 백제계로 보이는 도왜인의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壬申의 난의 원인을 신라세력이 大海人 황자를 지지해서, 백제와의 관계를 중시한 近江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는 설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人麻呂와 天武朝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天武朝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人麻呂는 天武朝에 있어서도 人麻呂歌集歌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略体歌> <非略体歌>라고 하는 많은 노래를 自作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궁정이나 황자와 관계된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人麻呂作歌에는 天武朝 이후, 성립한 <高天原>의 관념과 <現人神>사상 · <天皇即神>사상이 현저히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人麻呂는 天武朝廷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필자는 天武朝에서는 人麻呂가 공적인 방면에까지 진출하여 노래 부를 수 있는 作歌의 기회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近江朝廷에 출사하면서, 滋賀의 韓崎에 살던 백제계 도왜인이었다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天武朝가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왕조였던 만큼, 문학이나 학문의 분야보다는 정치적인 면과 율령국가를 향한 왕권확립에 더욱 많은 비중

을 두었던 시기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¹⁷⁾ 그리고 天武朝의 사상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은, 天武의 여러 황자황녀들과 접촉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帝紀 및 上古諸事の 記定>에 관한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人麻呂는 어째서 近江朝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天武朝나 持統朝에 와서도 궁정에 밀착된 가인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정적 근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人麻呂와 持統여제와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즉, 橋本達雄씨나 伊藤 博씨가 주장한 바와 같이, 天武朝에 있어서의 人麻呂의 作歌의 場으로서 持統후궁을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장 온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또한 人麻呂의 강력한 비호자는 역시 持統황후였고, 人麻呂는 持統에 의해 天武朝에 있어서도 여러 황자들과 접촉하며 궁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持統朝에는 공적인 궁정가인으로서 황자황녀의 죽음에는 빈궁만가를, 궁정의 화려한 행사에는 궁정찬가를 지어 바쳤다고 볼 수 있다. 人麻呂가 持統의 황후시절부터 비호를 받다가, 持統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황태자 草壁의 빈궁행사 때에 공적으로 持統궁정에 등장하면서 전문적인 儀禮歌人으로서 作歌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持統와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持統사망 후에 人麻呂의 작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持統사망과 동시에 궁정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 말할 수 있고, 人麻呂와 持統女帝가 그 만큼 밀접한 관계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人麻呂와 持統여제와의 <금지된 사랑> 또는 <밀월관계>라는 관계설정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人麻呂와 持統와의 특별한 관계는 언제 · 어떠한 계기에 의해 맺어졌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한 해답도 비록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近江朝에서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연령을 비교해 보아도 近江遷都時 持統은 23세였고, 人麻呂도 17, 8세 정도였으리라고 볼 때,¹⁸⁾ 近江大津宮에서의 두 사람의 만남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天武二年(673)의 出仕습에 의해 大舍人으로서 人麻呂가 출사했고, 그의 시적 재능에 의해 持統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도 상정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더욱 특별한 관계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의심한 바와 같이, 2년 3개월에 걸친 天武殯宮 기간에 人麻呂의

17) 拙稿, <天武朝의 文學과 政治>, pp.278~279.

18) 拙稿, <柿本人麻呂의 傳記의 考察> 《日本學報》 第41輯, 韓國日本學會, 1998. 11. pp.304~310.

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天武朝에 있어서는 人麻呂가 공적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人麻呂의 빈궁만가의 기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誄歌(るいか)>¹⁹⁾를 天武殯宮時, 백제왕 善光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백제왕 良虞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²⁰⁾ 人麻呂의 誄歌나 殯宮挽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人麻呂가 忍壁황자나 草壁황자와 같은, 어떤 특정한 황자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舍人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忍壁皇子出仕說>이나 <草壁皇子出仕說>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人麻呂가 여러 황자황녀와 접촉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持統여제의 비호와 신임에 의해서였고, 人麻呂와 持統여제와의 관계도 각별한 사이였다고 보는 편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견해가 아닐까 판단된다.

V. 結 論

持統朝는 政治史的으로는 고대왕권의 확립자인 天武천황의 遺業을 오로지 계승하고 완성하려고 했던 시기로서, 중앙과 지방에 이르는 정치기구의 정비는 물론이고, <大宝律令>의 완성에 의해 <大化改新> 이래 추구해온 율령에 의한 지배체제와 중앙집권적 국가가 확립 완성된 시대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天武朝와 持統朝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왕조로 볼 수 있다.

또한 文學史的으로는 《萬葉集》의 최대가인인 柿本人麻呂가 문학사의 전면에 公的으로 등장하면서 창조성이 풍부한 萬葉歌를 제작하여 不朽의 걸작을 남긴 古代文學의 最盛期였다. 그리고 人麻呂가 持統朝의 궁정가인으로서 크게 활약하면서도 天武朝에 빛을 발하지 못한 까닭은 近江朝廷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백제계 도왜인이었고, 天武朝의 시대적 분위기도 쿠데타에 의해 성립된 왕조였던 만큼, 문학이나 학문의 분야보다는 정치적인 면과 율령국가를 향한 왕권확립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持統朝는 柿本人麻呂 등이 인간의 삶과 죽음, 왕조의 흥망과 성쇠, 역사와 인간의 변화를 절실히 체현하면서 개인의식·역사의식이 현저하게 발달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 <誄歌(るいか)>란, 죽은 자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노래를 말함.

20) 《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學大系), pp.482~483.

【参考文献】

- 《日本書紀(上)(下)》(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67.
- 《古事記 祝詞》(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58.
- 《萬葉集 一》(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5.
- 《懷風藻·文華秀麗集·本朝文粹》(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64.
- 阿蘇瑞枝, <柿本人麻呂と忍壁皇子> 《國語國文學》 1972年 10月 特集號.
-----, <人麻呂文學の形成> 《古代文學》 第12號.
- 伊藤 博, 《萬葉集の歌人と作品 上》, 塙書房, 1975.
- 梅原 猛, 《水底の歌(上)(下)》, 新潮文庫, 1983.
- 柿花 仄 지음·姜容慈 옮김, 《여제(女帝)의 사랑》, 제이플러스, 2003.
- 久米常民, <古代歌謠·傳承と創造> 《國語と國文學》 1972年 10月號.
- 中西 進, <韜晦の歌聖 柿本人麻呂> 《歴史と人物》 1978年 11月號.
- 橋本達雄, <人麻呂と持統朝> 《萬葉集 I》(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有精堂, 1969.
- 吉田義孝, <天武朝における柿本人麻呂の事業> 《國語國文學報》 第15集.
- 吉永 登, <宮廷歌人の存在を疑う> 《萬葉-文學と歴史のあいだ-》, 創元社, 1967.
- 渡瀬昌忠, <島の宮(上) -人麻呂文學の基点-> 《文學》 1971年 9月號.
-----, <人麻呂の出現> 《日本文學全史 1 上代》, 學燈社, 1978年.
- 尹永水, <天武朝의 文學과 政治> 《日本文化學報》 第27輯, 韓國日本文化學會,
2005. 11.
-----, <近江荒都歌小論> 《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 -文學研究科-》 第25輯,
1994. 2.
-----, <人麻呂文學의 時代的 背景(上)> 《日本學報》 第34輯, 韓國日本學會,
1995. 5.
-----, <日本の 古代歌聖, 柿本人麻呂는 百濟系인가?> 《東아시아古代學》
第1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0. 6.
-----, <柿本人麻呂에 있어서의 壬申의 亂과 天武朝> 《日本學報》 第37輯,
韓國日本學會, 1996. 11.
-----, <柿本人麻呂의 傳記的 考察> 《日本學報》 第41輯, 韓國日本學會,
1998. 11.
-----, <近江朝의 文學과 政治> 《東아시아古代學》 第10輯, 東아시아古代學
會, 2004. 12.

要 旨

本研究は持統朝の文学と政治はどんな様相を帯びて展開して行くのかを柿本人麻呂と彼の文学を中心に文学と政治という学際的な方法によって考察してみ、持統朝の持つ歴史的・時代的背景と日本文化史上の意義を把握して見た論文である。その結果、次のような結論を得ることができた。

持統朝は政治史的には古代王権の確立者である天武天皇の遺業をもっぱら継承し、完成しようとした時期として中央から地方に至るまで政治機構の整備は勿論、〈大宝律令〉の完成によって〈大化改新〉以来、追い求めてきた律令による支配体制と中央集権的国家が確立完成された時代であった。そういう意味において天武朝と持統朝は基本的に同じ性格の王朝と言えよう。

一方、文学史的には《万葉集》の最大歌人である柿本人麻呂が文学史の前面に公的に登場しながら創造性の豊かな万葉歌を制作し、不朽の傑作を残した古代文学の最盛期であった。そして人麻呂が持統朝の宮廷歌人として大いに活躍しながらも天武朝に於いて姿が見えない理由は近江朝廷と密接に関連していた百済系渡来人であったからであろう。それに天武朝の時代的雰囲気もクーデータによって成立した王朝であったため、文学や学問の分野よりは政治的な面と律令国家に向けた王権確立にもっと大きな比重を置いた時期であったからだろうと考えられる。

つまり、持統朝は柿本人麻呂らが人間の生と死、王朝の興亡と盛衰、歴史と人間の変化を切実に体現しつつ、個人意識・歴史意識が顕著に発達した時代であった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持統朝、持統天皇、天武朝、近江朝、萬葉集、
(柿本)人麻呂、人麻呂作歌、(柿本)人麻呂歌集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31-249-9119, 010-7474-3019
e-mail : ysyoon@kyonggi.ac.kr